

## 소규모 학교교육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 탐색

### A Study on the Lifelong Educational Functions of Small Sized School Facilities



이 경 희 / 대진대 교직과 교수  
 Lee, Gyeong-Hee / Professor, Daejin University  
 gyeong@daejin.ac.kr

#### 1. 서론

오늘날의 사회는 평생학습사회, 열린교육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학습은 인간의 생존과 사회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교육제도를 통해서 학습활동에 개입하려는 행위는 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는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영위하는 학습활동에 대해 국가나 사회로부터 오는 간섭으로서의 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 교육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사회에서 국가와 사회는 기존의 형식교육체제에서 활용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비형식교육과 무형식교육에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교육시설의 평생교육적 활용 역시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급증, 통폐합 등으로 늘어난 학교시설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학교시설의 복합화 시도 등은 학교시설이 평생교육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학교시설의 운영과 관리가 교육청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제도적으로 많지 않다든지, 학교시설의 수요 주체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 주어짐으로써 평생학습이나 커뮤니티 시설로 학교시설의 기능을 확장할 때 뒤따를 수 있는 형식교육활동에 대한 방해 및 관리 문제의 우려 등은 여전히 교육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평생교육적 기능 확대를 위하여 교육시설 특히 학교시설을 평생교육의 일상화와 연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범주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평생교육적 기능 및 소규모학교 및 학교 간 통폐합이 되고 있는 학교교육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발전 배경에는 지식과 기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학교교육의 한계성,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대중교육으로 바뀔에 따라 경제 및 기타 사정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의 고학력 사회 대처요구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응력과 창의력을 길러야 할 필요성,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교양교육·직업교육·취미오락 교육 등 자아실현의 요구, 인간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교육의 문제, 국제화 시대에 따른 국제 이해심·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국가 정체성을 신장시킬 필요성, 평생 학습권 보장에 대한 요구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교육의 3가지 형태<sup>1)</sup>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1) 형식교육은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원)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비형식교육은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를 통해 학습 및 훈련에 참여하는 교육, 무형식학습은 형식교육이나 비형식교육과는 달리 학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교육부, 2013). 첫째, 국민행복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UN, 2012; 김종서 외 재인용)로 인식됨에 따라 개인의 행복과 사회번영을 이끄는 요소로 ‘평생학습’을 인식한 점, 둘째,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이 지식(knowledge)에서 창조성(creativity)으로 이동하는 창조경제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일과 학습’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게 된 점, 셋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구성비의 변화 및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인구 14%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 고령인구 20%이상인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넷째, 국제 지위와 경제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낮은 수준으로 2013년 OECD 행복지수(BLI) 조사 결과 34개국 중 27위, 2012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서 156개국 중 56위에 머무는 등 국가 경제는 성장했으나 국민의 삶의 수준 변화는 미미하며, 계층 간·세대 간 삶의 질 격차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은 하위라는 점 등이 평생교육의 기능 강화를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개 영역, 12개 추진 과제, 29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된 ‘제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했는데, 4개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이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이며, 추진 과제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등 2개 과제, 4개의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표 1. 제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4.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	4-1.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4-1-① 학교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 연계 4-1-②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4-2. 지역주민의 인문 역량 시민역량강화	4-2-① 지역기반 인문학 지원강화 4-2-②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역량지원
	4-3.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4-3-①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4-3-②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개발 및 확산

세부추진과제를 보면,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학교 평생교육 사업 개편 및 확대를 통하여 학교 평생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추진 내용으로는 학교시설

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며, 활동이나 참여를 통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알게 되는 학습 경험을 포함함(교육부, 2013)

을 활용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학교평생교육 모델 개발 및 학교 평생교육 연구·시범 학교 운영사업 확대, 교육청 중심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평생교육 지원 강화,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지역 학교 시설의 복합기능화로 농어촌 학교를 지역의 교육·문화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 개선 지원, 농어촌 폐교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소외지역의 평생 교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 등이다.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 모델로는 다음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3).

표 2. 학교시설 평생교육 운영 유형

유형	운영 형태
1유형: 학교 단독형	학교 단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역할 수행
2유형: 학교 간 연계형	인근 학교들이 연계, 학교 간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공유
3유형: 지역기관·단체·학교 파트너십형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대학 등이 학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참여 주체 간 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 추진
4유형: 마을 학교형	농어촌의 폐교나 지역의 마을회관 등을 활용,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3. 학교시설복합화와 평생교육적 기능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학교 교육이 한계에 부딪히자 진보주의 교육자들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개념을 주장하면서 나왔다(한명희, 1997: 261). 학교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은 ‘지역사회가 학교의 자원을 이용하고 학교도 지역사회를 생활실험실로 이용하면서 학교가 지역사회의 생활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Olsen의 주장(오병욱 외 1인, 2008: 118)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열린교육사회, 평생교육사회’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교육 패러다임은 학교가 지역사회에 열린 학교로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주민의 체육·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 역시 지역사회 시설을 창의적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1997년 제 7차 교육과정의 도입 이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목표로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과 복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제안 사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교육시설의 평생학습적 기능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48개 학교가 복합화되어 학교시설에 체육관, 주차장, 수영장, 도서실, 정보센터, 헬스장 등과 같은 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면서 학교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즉, 학교는 운동장 개방에서부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실, 강당, 어학실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 지역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복합화가 진행되고 있고 있다.

표 3.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2010.12.31.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26	4	4	34(70.8%)
부산	1	-	-	1(2.1%)
대구	3	-	1	4(8.3%)
대전	-	1	-	1(2.1%)
울산	-	-	1	1(2.1%)
경기	1	-	-	1(2.1%)
강원	1	-	-	1(2.1%)
충남	2	-	-	2(4.2%)
전북	-	-	1	1(2.1%)
경남	2	-	-	2(4.2%)
계	36(75%)	5(10.4%)	7(14.6%)	48(100%)

\* 자료: 교육부, 이성룡(외), 2011.

표 3.에서 보듯이 학교시설 복합화는 주로 대도시의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대도시가 농산어촌보다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주차장 등 복합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많고 접근성 및 유지 관리가 보다 용이한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평생학습 참여 장애 요인으로 '거주 지역의 가까운 거리에 평생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비율(표 4. 참조)이 도시 지역보다 높은 농어촌은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접근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복합화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의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한 평생교육적 기능 확대는

표 4. 지역별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중복응답, %)

장애 요인	서울, 광역시	중소 도시	농어촌
시간이 없어서	88.8	108.1	79.1
근무시간과 겹쳐서	37.6	21.5	18.9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비싸서	17.4	11.8	7.6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9.5	9.2	23.9

\* 자료: 교육부, 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어촌 학교를 지역의 교육·문화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화를 할 수 있는 시설환경 지원을 농어촌 지역에 우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4. 소규모학교와 평생교육적 기능

근린주구이론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며, 초등학교의 시설은 지역공동체의 공간적·물리적 중심지인 동시에 기능적 중심이 된다(이성룡 외, 2011). 지역공동체가 활성화하려면 주민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고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문화생활의 중심이 되어 지역 공동체 내에서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학교시설은 지역에 기반하고 지역사회의 움직임과 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동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첫 번째 장소로서 교육의 장일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이 밀접하게 유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공식적인 장이다. 1982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나름의 성과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표 5.와 표 6.에서 보듯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교가 진행되었지만 서울시와 광역시보다는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인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지역에서 폐교가 특히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폐교재산을 매각한 비율은 전체 폐교 수의 58.9%인 2,088개교, 폐교의 활용률은 29.2%인 1,034개교, 미활용률은 11.9%인 422개교를 점하고 있다. 폐교 매각률과 미활용률을 합친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함으로써 폐교가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미활용률에 있어서도 전남(19.8%), 충남(13.1%), 경남(11.8%) 등의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미루어 학령인구 수가 적은 지역의 폐교는 방치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 소외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에서 밝혔듯이 농어촌 폐교의 자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 확대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표 5. 소규모학교 현황

학교 구분	본교				
	전체 학교수	30명 이하	60명 이하	100명 이하	150명 이하
초	5,913	394	1,188	1,808	2,099
중	3,173	-	-	63	784
고	2,322	-	-	108	176
계	11,408	394	1,188	2,549	3,059
학교 구분	분교장				
	전체 학교수	30명 이하	60명 이하	100명 이하	150명 이하
초	278	258	271	276	278
중	33	-	-	33	0
고	0	0	0	0	0
계	311	258	271	309	278

\* 자료: 2013 교육부 통계자료

\*\* 2013.4.1. 기준 전국의 초·중·고 학교 수는 11,408교, 분교장은 311교임.

표 6.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폐교수	1	12	54	28	14	8	22	163	431
매각	1	0	30	12	7	4	8	72	171
활용		6	14	15	7	3	11	79	230
미활용		6	10	1	-	1	3	12	3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총계
폐교수	230	252	321	776	657	532	32	11	3,544
매각	103	183	268	519	411	286	4	9	2,088
활용	100	36	27	103	194	183	24	2	1,034
미활용	27	33	26	154	52	63	4	-	422

\*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2013.04.01. 기준

\*\* 기간은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폐교 수임.

## 5. 결론

국민 모두의 평생학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교교육시설 복합화가 시도되고 있고, 통폐합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학교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평생교육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제3차 평생교육종합진흥계획'에서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유형 중에서 각 교육청과 지자체는 각각의 사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적용 실시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결합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공동체 기반 위에서 교육소의 지역 및 교육소의 대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양성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처럼 평생교육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배치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주체들 간의 자율적인 협의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시스템의 재편과 제도적인 참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늘날 학습은 개인, 국가의 경쟁력 향상 및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생,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해결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육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 확장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계자들의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교육부, 제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2013
2. 김종서 외 3인, 평생교육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2013
3. 오병욱 외 1인,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4호, 2008.
4. 이기봉 외,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5. 이성룡 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경기개발연구, 2011.
6. 이재국, 오병욱, 평생교육을 고려한 초등학교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제9권 1호, 41-48, 2009
7. 이재림, 초·중등학교 유휴시설 활용방안 연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교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환경연구원학술지, 제11권 3호, 1-12, 2012.
8. 한명희, 서양교육사신론, 서울: 도서출판 아름다운 세상, 1997.